

베일벗는 '박연차 리스트'... 정치권 초긴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전격 체포되고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전격 소환되면서 '박연차 리스트'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박연차 태광산업 회장으로 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 때문에 앞으로 처벌될 전·현직 정·관계 인사가 2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의 칼끝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21일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을 체포한 데 이어 22일 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재소환 조사했다.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6월 청와대에서 사퇴한 이후인 9월경 박 회장으로 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 회장의 정치권 로비세를 본격 수사한 지 불과 일주일만인 지난 19일 송은복 전 검찰시장과 이경

檢, 추부길 체포·이광재 재소환... 수사 급물살 현역의원 등 정·관계 인사 20여명 처벌될 듯

육 전 열린우리당 후보를 구속한 바 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오는 5월 중순까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돼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해 20명 안팎의 정관계 인사들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선, 현역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점에서 4월 임시국회가 개최하기 전 이광재 의원을 제외한 최소한 현역의원 2~3명 이상이 추가로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이어 4월 이후엔 박 회장의 사업에 각종 도움을 주거나 세무조사 및 검찰 수사 무마 등의 청탁을 받은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고위 공무원, 전직 정치인들이 검찰의 집중 조사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5월 초에는 불구속 기소할 정도

의 혐의를 받는 정·관계 인사들을 두루 수사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박 회장의 진술보다는 회계자료 분석과 자금 추적, 통화 내역 조회 결과 등을 근거로 수사하고 있어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처럼 전혀 의외의 곳에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추부길 홍보기획비서관은 그간 소문으로 떠돌던 박연차 리스트에 전혀 오르내리지 않은 인물인 수사 기간에 장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에 관계를 제외하고도 최소한 10명 이상의 전현직 정치권 인사들이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정치권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 결과는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정치권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이 홍콩 현지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배당받은 수익금 685억원 중 일부가 국내의 계좌로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작년 12월 홍콩에 사법 공조를 요청해 지난 주 처음으로 계좌 내역 일부를 받았으며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에서 모든 자료를 넘겨받아 자금의 흐름을 쫓고 사용자를 추적하다 보면 수사 대상이 겹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수사 기간도 장기간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 기자 tuim@



“이라크전 중단하라” 가두시위 반전 운동가들이 21일(현지시간) 이라크전 개전 6주년을 맞아 미국기와 외국 국기들이 덮인 가짜 관들을 들고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 지역을 관통하는 반전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美 여기자 2명 평양 압송된 듯

北 군부·정보당국이 직접 조사 가능성 힐러리 美 국무, 억류사태에 적극 개입

북한이 북중 국경지대인 두만강에서 취재도중 억류된 미국 여기자 2명을 평양으로 압송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22일 대북 소식통들이 말했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은 이날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뤄 이미 미국 여기자 2명은 평양으로 압송돼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군 보위사령부의 직접 조사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1일 처음으로 이 사건을 공식 확인한 점과 17일 사전 발생 직후 미국

에 추가적인 식량 지원을 거부한 사실에 주목했다.

소식통들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같은 사건을 보도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면서 “이는 이미 북한의 군과 정보 당국이 평양에서 이들을 직접 조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대북 소식통들은 “통상적인 사안 경우에는 평양으로 압송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미국 국적의 취재진이 억류된 만큼 북한이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북한군에 의해 억류된 미국 여기자 2명과 중국 국경수비대에 체포된 미국인 프로듀서와 조선족 가이드는 모두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에서 북한 영토 쪽으로 넘어갔다. 이를 제지하던 북한군에 여자 2명은 잡히고 남자 2명은 중국 쪽 폐쇄회로(CC)TV에 찍혀 중국 국경수비대에 넘겨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의한 여기자 2명 억류사건을 직접 챙기고 있다고 국무부가 지난 20일 밝혔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클린턴 장관이 지금 이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北, 위성 발사 위해 2개항로 폐쇄”

내달 4~8일까지...러 통신 “4일 위성 발사할 듯”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위해 다음달 4일부터 8일 사이 2개 항로를 폐쇄하겠다고 지난 21일 우리 정부에 알렸다.

그러나 이들 2개 항로는 우리나라 국적선은 물론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기도 이용하지 않고 있어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는 없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북한의 평양항로관제소가 국토부 항공안전본부 산하 항공교통센터에 2개 항로를 폐쇄하겠다고 오늘 오후 통보해 왔

다”며 “이유를 통신위성발사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북한이 알려 온 내용은 R452항로와 G346항로중 일부를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오후 4시에 폐쇄하겠다는 것.

한편 북한이 다음달 4~8일 사이에 인공위성으로 주장하는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발사가 4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노보시트 통신이 일본 지지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일 ‘최악의 독재자’ 3위

북한 지도자 김정일(67)이 ‘세계 최악의 10대 독재자’ 리스트에서 3위에 올랐다고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주말 매거진 ‘퍼레이드’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년 ‘세계 최악의 10대 독재자’ 순위를 발표해온 퍼레이드는 지난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1위로 선정, 세계 최악의 독재자로 꼽았으나 올해는 3위로 순위를 낮췄다.

이 잡지는 미 국무부와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 국제엠

네스티, 국경없는 기자회 등의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인권학대, 지도자의 통치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 수준, 그들이 휘두르는 절대 권력의 정도 등을 분석해 매년 10대 독재자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85) 대통령이 1위에 올라 세계 최악의 독재자로 선정됐다.

2위에는 지난해에 이어 오마르 알 바시르(65) 수단 대통령이 꼽혔다.

/연합뉴스

합력을 받아 사천 학원인이 공무원합격의 Know-How를 얻는다!!

수석합격 **7급공무원 이론반/9급문제풀이** **한빛고시학원**

5년 역점적 일일특강

목성방수보벽선공법

IPALG 하이브리드 강화 특수방수 공법

방수

[주]이대방수종합기술연구소

방수 (06-2)511-0444

2009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주택보급

정부무상보조금 60%

내 집 전기는 내가 직접 만들어 쓴다~!

그만큼 100만원도 보급사업(2009년)에

신청을 100%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한다.

신청기간: 2009.03.23 ~ 2009.04.30

신청처: (주)코스모엔지니어링

문의: 080-7272-7000

COSMOENG (주)코스모엔지니어링